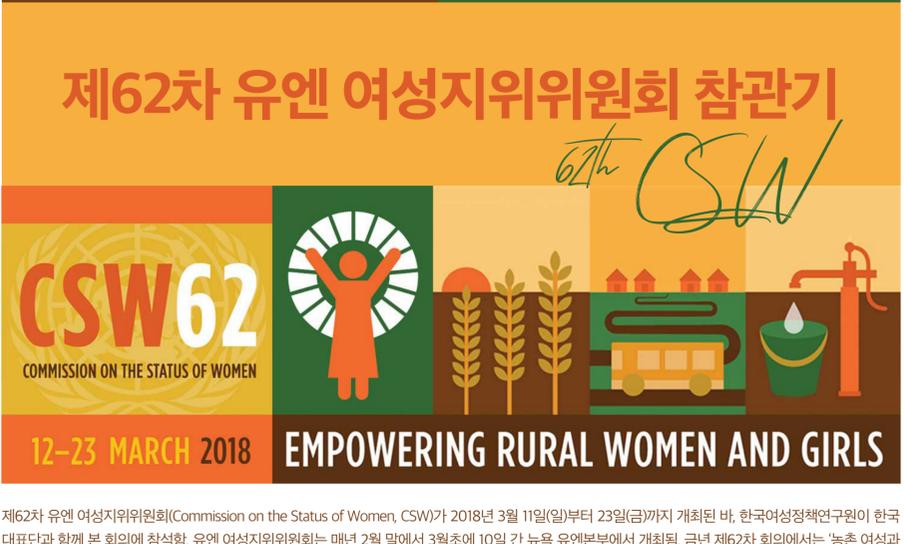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2018년 3월 11일(일)부터 23일(금)까지 개최된 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 대표단과 함께 본 회의에 참석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초에 10일 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됨. 금년 제62차 회의에서는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농촌 여성과 여아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및 여성정책 공조를 강화함. 본 글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소개하고, 직접 참관했던 제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여성지위위원회란 무엇인가?

-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정부간 기구(global intergovernmental body)로서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됨.
-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회원국 중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45개 대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국은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11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9개국, 서유럽과 다른 국가 8개국, 동유럽 4개국 등임. 각 이사국의 임기는 4년임. 한국은 1993년 4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이사국으로 처음 피선되었으며, 현재에도 이사국으로 활동 중임.
-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4인, 보고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각 2년임. 제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은 제랄딘 번 네이슨(Geraldine Byrne Nason) 주유엔 아일랜드 대사임.
-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지위향상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 산하기관들의 여성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함. 매년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의 경제사회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을 선정하여 논의함. 북경 행동 강령의 정기적 이행검토 및 유엔 성주류화 활동에 촉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최근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에 기여하여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 서고 있음.

여성지위위원회 체제도



여성지위위원회 최근 10년 의제 동향 (2010~2019년) 살펴보기

-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2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각 회원국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매년 주어진 의제에 관해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을 도출하여 정부와 타 기관들이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함.
- 매해 주제는 상이하며, 주로 우선주제(priority theme)와 검토의제(Review theme)로 구성됨. 우선 주제는 북경행동강령,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와 연계성을 토대로 선정되며, 검토의제는 이전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결론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함임.
- 최근 10년간의 의제 동향을 살펴보면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검토, 여성의 고용과 노동의 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철폐,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2018년에는 '농촌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의 우선주제와 47차 회의 합의결론인 '여성의 언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을 검토의제로 논의함.

연도 (차수)	의제구분	주제
2010 54차	대주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검토 및 도전과제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2011 55차	우선의제	여성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한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검토의제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 제51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2 56차	우선의제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와 빈곤 및 기근 근절, 개발 및 현재 도전과제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
	검토의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 제52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3 57차	우선의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검토의제	HIV/AIDS 간병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책임분담 * 제53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4 58차	우선의제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취
	검토의제	여성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한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 55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2015 59차	대주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검토 및 도전과제 북경행동강령과 성인지적 관점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
	우선의제	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2016 60차	검토의제	여성-여아 대상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 * 57 회의 합의 결론 관련
	우선의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
2017 61차	검토의제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취 * 58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우선의제	농촌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
2018 62차	검토의제	여성의 언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참여와 접근 * 47차 회의 합의 결론 관련
	우선의제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 보장 시스템, 공공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
2019 63차 예정	검토의제	여성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 60 회의 합의 결론 관련

한국정부의 여성지위 위원회에서의 활동

- 한국 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1986~1993년까지 옵저버로 참가함.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여성지위 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됨. 이후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사국을 역임함으로써 여성지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현재 2015-2018년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2019-2022년 연임 예정임.
- 한국 정부는 매년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과 연구원, 국회 등의 자문단을 한국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파견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6년부터 매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해왔으며, 금년에도 주제에 맞추어 본인 주제 전문가가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함.
- 한국 대표단은 고위급전략회의 연설과 고위급원탁회의를 통해 의제와 관련한 한국의 여성관련 정책을 소개함. 또한 여성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하며 세계 각국과 여성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본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주유엔대표부 조태열 대사와 최성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을 진행함.

2018년 제62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주요 내용 짚어보기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개요

기간 2018년 3월 12일(월) ~ 2018년 3월 23일(금), 약 2주간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참석자 170개 회원국과 600여개 시민단체에서 약 4,300명

주요 행사 고위급 원탁회의, 일반회의, 전문가 패널토의, 결과보고서 및 결의안 채택 등

- 개회식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랄딘 번 네이슨(Geraldine Byrne Nason) 의장과 주요 인사들의 연설을 통해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물(concrete, actionable outcome) 도출을 위한 회원국의 협조를 강조하였음.
- 본 총회에서는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농촌 여성과 여아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함.
- 한국 대표단은 일반회의 연설(조태열 주유엔대표부대사)을 통해 한국의 경우 그간 여권 신장을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농촌 여성 및 여아는 여전히 불평등과 경제사회적 기회 제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 5년 마다 수립하는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농촌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 ▲ 장애인 및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공유함.
- 회의 참가국들은 농촌 여성 및 여아들이 도시여성에 비해서 더 심한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제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SDG 이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함. 특히 구체적인 과제로 ▲ 농촌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철폐, ▲ 교육 및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 무보수 노동에 대한 지원 고려 및 경제참여 확대, ▲ 토지 소유권 보장 등을 강조하였음.
- 농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이슈는 기존의 국제사회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이슈이나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함. 특히 개발도상국과 취약국 농촌 여성의 경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여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에 대해 선진 공여국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례가 공유됨.

출처 : UN Photo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합의 결론

- 규범적, 제도적, 정책적 체계 강화**
- 농촌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는 국가정책의 설계 및 이행
 - 토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소유권, 사용권 보장에 대한 법 제정 및 개정
 - 농촌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여성성기절제, 조혼, 강제혼, 성희롱 포함) 철폐를 위한 법과 포괄적 정책 수립
 - 농촌 여성의 법적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의 보편적 출생신고, 혼인증명 보장

- 농촌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 이행**
- 농촌 지역의 성평등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무보수 및 가사노동 감소를 위한 법과 정책 개정
 - 심대 임신 청소년, 싱글맘 등을 포함한 농촌여성의 교육을 위한 정책지원
 -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서비스 확충 및 보장
 - 농촌 여성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정책지원
 - 원주민 여성, 장애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농촌여성에 대한 고려

-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 리더십, 의사결정 강화**
- 토지,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 관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젠더 관점의 주류화
 - 농촌 여성의 리더십 강화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제고
 - 농촌 여성의 미디어, ICT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 농촌 여성의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 및 지원

농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 제안

- 제62차 여성지위위원회의 회의 주제인 '농촌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농촌 여성 및 여아가 겪고 있는 기아, 빈곤, 교육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됨.
- 본 총회에서 도출된 합의결론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의해 비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회의참가 결과보고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임.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농촌 여성과 여아의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결론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 및 이행이 촉구됨.

작성자 : 조혜승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혁신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